

조선후기 향촌지식인의 삶과 부부의 기억

- 순천김씨의 <노부탄>과 김약련의 <답부사>*

이 상 원**

차 례

1. 서론
2. 규방가사의 전통과 <노부탄>
3. <남아가>의 전통과 <답부사>
4. 결론, 그리고 기억의 차이가 의미하는 것

| 국문초록 |

이 글은 최초의 부부답가인 <노부탄>과 <답부사>를 분석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이 작품들의 작가인 순천김씨와 김약련은 부부 사이임에도 자신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기억과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방식에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노부탄>은 '늙은 부인의 탄식'이라는 제목의 뜻 그대로 순천김씨가 자신의 일생을 탄식조로 읊은 것이다. 그런데 작품의 내용은 남편의 과거 뒷바라지와 이를 둘러싼 치산(治産)의 문제로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규방가사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자탄가와, 여성의 역할 가운데 특히 치산(治産)의 문제에 집중한 변형 계녀가인 <복선화음가>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답부사>는 부인이 자은 <노부탄>에 대한 김약련의 화답가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 상층 남성들의 꿈과 욕망을 집약한 <남아가>를 모델로 삼아 남자로서의 자신의 일생을 과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답부사>는 전체적인 틀에서 <남아가>의 전통을 이었으나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남아가>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남아가>에서 강조되고 있는 신나는 놀이와 유희, 화려한 관직생활 등에 대한 내용은 대폭 축소된 대신에 <남아가>에서는 간단하게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처사(致仕) 이후의 삶에 대한 내용이 작품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확대되어 있다.

<노부탄>과 <답부사>의 이런 차이는 이들 부부 개인의 기억의 차이이자 조선후기 사회에서 통용되어 왔던 문학적 관습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여성문학인 규방가사와 남성문학인 <남아가>의 관습 차이가 발생한 것은 결국 그들의 실제 삶이 그렇게 달랐기 때문이다.

핵심어 : 규방가사, 기억, 김약련, <남아가>, <노부탄>, <답부사>, 순천김씨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3363).

** 조선대학교

1. 서론

이 글은 최초의 부부화답가인 <노부탄(老婦歎)>과 <답부사(答婦詞)>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선후기 향촌지식인의 삶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부탄>과 <답부사>는 김약련(金若鍊, 1730~1802)의 시가집인 『두암제영(斗庵題詠)』¹⁾에 실려 있는 가사다. 『두암제영』은 김약련이 삭령 유배에서 풀려나 전원으로 돌아온 1777년(48세)부터 송정원 거주서로 복관된 1793년(64세) 사이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문들만을 별도로 묶은 책자다. 이 책자는 <두암기(斗庵記)>²⁾, <두암후기(斗庵後記)>³⁾, <암중팔영(庵中八詠)>⁴⁾, <암중팔영>의 차운시를 수록한 첫 번째 부분과 <노부탄>, <답부사>, <과폐탄(科弊歎)>, <소학가(小學歌)> 등 가사 4편과 <육가(六歌)>라는 제목의 시조 1편 6수를 수록한 두 번째 부분, 그리고 이언편(俚諺編)이라 하여 <모씨자전(某氏子傳)>, <여호걸전(女豪傑傳)>, <낙양현부전(洛陽賢婦傳)>, <호남망사전(湖南妄士傳)> 등 4편의 전을 수록한 마지막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암제영』의 존재에 대해서는 백두현이 처음 소개하였고,⁵⁾ 이를 바탕으로 손대현이 여기 수록된 가사 작품의 전반적 특성을 고찰하였다.⁶⁾ 이후 <소학가>⁷⁾, <육가>⁸⁾, <과폐탄>⁹⁾에 대한 개별적 연구가 순차적으로 진행된 바 있는

- 1) 필자는 이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백두현 교수님께 부탁을 드려 『두암제영』의 사본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백두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2) 이 글은 앞서 추정된 기간보다 훨씬 이전인 경오년(1750년)에 쓴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포함시킨 것은 두암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상징적인 글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3) 신축년(1781년).
- 4) 신축년(1781년).
- 5) 백두현, 「두암 김약련의 한글 가사와 시조-노부탄, 답부사, 과폐탄, 소학가, 육가-」, 『어문론총』 제63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 6) 손대현, 『『두암제영』 소재 가사의 형상화와 문학사적 가치』, 『어문론총』 제63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 7) 손대현, 「<소학가>의 『소학』 수용과 문학적 의미」, 『어문학』 제135집, 한국어문학회, 2017.
- 8) 이상원, 「<두암육가>의 성격과 계보학적 위상」, 『한국시가문화연구』 제40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7.
- 9) 손대현, 「<과폐탄>의 서술 양상과 문학사적 가치」, 『어문학』 제139집, 한국어문학회, 2018.

데 아직까지 <노부탄>과 <답부사>에 대한 작품론적 고찰은 시도된 적이 없다. 이에 이 글에서는 <노부탄>과 <답부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노부탄>과 <답부사>는 김약련의 부인인 순천김씨와 김약련이 주고받은 부부화답가다. 화답가(和答歌) 형태를 띤 가사는 주인과 머슴이 주고받는 형태를 취한 <고공가>-<고공답주인가>, 사랑의 문제를 사이에 두고 남녀가 주고받는 연애편지 형태를 띤 작품들,¹⁰⁾ 화전놀이와 관련하여 남녀가 상대를 조롱하는 형태의 공방을 주고받은 <화전가>-<조화전가>-<반조화전가>¹¹⁾ 등 꽤 많이 존재하는 편이다. 하지만 실제 부부가 각각 한 편의 가사를 지어 화답한 사례는 지금까지 보고된 것이 없다. 이런 점에서 <노부탄>과 <답부사>는 가사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평생을 함께 살면서 동일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대한 부부의 기억과 그것을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방식이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바로 이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두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2. 규방가사의 전통과 <노부탄>

<노부탄>¹²⁾은 김약련의 부인인 순천김씨(順天金氏, 1729~1799)가 자신의 회갑인 1789년에 지은 것이고, 이에 대한 답가 형태로 김약련이 지은 것이 <답부사>다. 두 작품이 창작된 1789년은 김약련과 순천김씨가 혼인한 1747년으로부터

10) 남획(南徽, 1671~1732)와 비구니 사이에 오간 <승가(僧歌)> 연작, 청룡가인과 선달님이 주고받은 <청룡가인한창가>-<답이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승가> 연작에 대해서는 ‘안대회, 『연작가사 『승가』의 작자와 작품성격』, 『한국시가연구』 제26집, 한국시가학회, 2009.’ 참조. 청룡가인과 선달님이 주고받은 <청룡가인한창가>-<답이라>에 대해서는 ‘이상원, 『『소수록』 소재 <청룡가인한창가> 연구』, 『한국시가연구』 제44집, 한국시가학회, 2018.’ 참조.

11) 이에 대해서는 ‘이원주, 『『잡록』과 <반조화전가>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제7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80.’ 참조.

12) 제목 위에 “九十三句”라 쓰고 ‘三’자 옆에 수정하여 쓴 ‘二’자가 있다. 이를 근거로 백두현은 실제의 구절 수가 92구임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구절 수는 4음보 1구 기준으로 93구이고, 2음보 1구 기준으로 186구이다. 이 중 2음보 1구 기준으로 했을 때 마지막 185구와 186구는 3음보로 파악 형태를 취하고 있다.

터 42년이 지난 시점이다. 이 사이에 과거 준비, 과거 합격, 뜻밖의 유배, 해배 후 전원생활 등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부부이므로 김약련과 순천김씨는 이 모든 일들을 함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겪은 인생 체험에 대한 부부의 기억과 이를 가사체로 형상화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회갑을 맞은 순천김씨는 자신의 60년 인생, 그 중에서도 특히 김약련과 함께 한 40여 년의 결혼생활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늙은 부인의 탄식’이라는 뜻을 가진 <노부탄>이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여인의 삶을 탄식조로 읊어내는 규방가사의 전통을 일단은 따르고 있다.

어와 可笑로다	어와 가소롭다.
어릴선 婦女로다	못난 게 부녀로다.
아히 적 질삼 비화	아이 적 길쌈 배워
곱도록 精히 흥여	곱도록 정성 들어
열흔 새 ¹³⁾ 열두 새는	열한 새 열두 새는
내 눈의 덜 고아라	내 눈에 덜 곱구나.
衣服도 흥려니와	의복도 하려니와
뜯딘들 업슬손가	쓸 데가 없을손가?
가히고 쏘 가혀서	개고 또 개어서
箱子籠의 너허 노코	상자에 넣어 놓고
엄의 눈 굴일만정	어미 눈 가릴망정
다시곰 피화 내어	다시금 모아 내어
ㄹ는 비 고은 明紬	가는 베 고운 명주
一生 넘고 남을노다 ¹⁴⁾	일생 입고 남졌도다. ¹⁵⁾

제목에 이어 작품 시작 역시 가소롭고 어리석은 것이 여자의 인생이라고 탄식하고 있다. 이런 탄식조로 시작하는 것은 자탄가 계열의 규방가사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점에서 순천김씨의 <노부탄>은 규방가사의 전통을 일

13) 피륙의 날을 세는 단위. 한 새는 날실 여든 올이다.

14) 『두암제영』. 이하 원문은 모두 이 책에서 인용한 것임.

15) 필자가 직접 현대어로 옮긴 것이다. 이하 같음.

정하게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규방가사를 창작한 여성작가들은 왜 자신의 삶을 탄식 위주로 노래한 것일까? 그것은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여성들이 자유의지에 입각한 주체적 삶을 살 수 없었고 남성들이 정해놓은 삶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성들이 정해놓은 삶이란 주지하다시피 결혼하기 전엔 부덕(婦德)을 쌓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고, 결혼 이후에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부모를 어떻게 봉양하고, 손님을 어떻게 접대하며, 치산(治産)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등등을 가리킨다. 순천김씨의 삶 또한 이 점에서 별로 다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규방가사의 전통 속에 <노부탄>이 있게 만든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부탄>이 규방가사의 전통을 따랐다고 하여 자타가 계열에서 흔히 나타나는 천편일률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노부탄>은 오히려 기본적으로 규방가사의 전통을 잇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규방가사에서는 거의 만날 수 없었던 새로운 성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이 일반적인 규방가사와 차별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순천김씨가 회갑을 맞은 상황에서 가사체로 부부가 인생 소회를 밝히는 부부화답가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노부탄>이 규방가사의 전통을 어느 정도 따랐으면서도 고유의 개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작품 진행 순서에 따라 이 작품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하자.

앞의 인용에서 보듯 순천김씨는 어릴 때부터 길쌈을 충실히 배웠을 정도로 부덕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의 부친은 이런 딸을 좋은 곳으로 시집보내기 위해 사람을 가리고 가려 제후 같은 남자를 찾는다.¹⁶⁾ 그렇게 해서 선택된 인물이 김약련이다. 부친이 고른 김약련에 대한 순천김씨의 느낌은 나쁘지 않았다. 얼굴도 좋고 성품도 그르지 않은데다 학문과 출세에 뜻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¹⁷⁾ 그렇기에 걱정되는 바가 없지 않았으나 자신이 감당해야 할

16) “어버의 情이 깊혀 / 사름 보고 가리샤되 / 이 아히 쇠집가면 / 세간을 일우리라 / 말 듯고 우은 尺음 / 늣드려 못 흥여도 / 丈夫를 만나오면 / 治産을 문져 흥가 / 곱도록 남혀 내어 / 封侯 즈자 보내오리”

일로 적극 받아들인다.¹⁸⁾ 그리하여 그녀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 남편의 과거를 뒷바라지한다.

文房의 넷 벗님네	문방의 넷 벗님네
나를 밋고 부르시며	나를 믿고 부르시며
머리에 갓과 網巾	머리에 갓과 망건
발 앞에 신는 신을	발 아래 신는 신을
뚫토록 니어 드려	종도록 이어 드려
뜻대로 가옵소서	뜻대로 가옵소서.
山房 ¹⁹⁾ 의 가는 接糧	산방에 가는 양식
官白 ²⁰⁾ 을 보는 正草	백일장을 보는 종이
서울의 庭試 講聖	서울의 정시 알성
식고을 監試 東堂	시골의 감시 동당
뵈 프라 明紙 ²¹⁾ 사고	베 팔아 명지 사고
쇼 프라 資裝 ㅎ니	소 팔아 행장 하니
아히트 적 留念 ㅎ 것	아이 적 유념한 것
다 쓰러 업시 ㅎ고	다 쓸어 없이 하고
흔жат 쓴 샷던 田畝	내 손으로 샷던 전답
앗길 줄 모르고서	아낄 줄 모르고서
이 科擧 ㅎ 밧 賭地	이 과거 한 밧 도지
오는 式年 ㅎ 논 프니	오는 식년 한 논 파니

김약련의 집안은 조선전기에는 명망 있는 가문이었으나 조선중기 이후에는 5대에 걸쳐 관직자를 배출하지 못함으로써 김약련 당대에는 가세가 많이 기울

17) “얼굴도 도커니와 / 性稟인들 외다 흥가 / 志業을 못즈오니 / 文章이며 功名일쇠”

18) “일즉이 失母 ㅎ고 / 兄嫂의 食客 되어 / 一分錢 一粒穀을 / 私儲를 어이ㅎ리 / 님으시고 먹은 일은 / 내 職分 귀 아닐가”

19) 산촌에 있는 집의 방.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유생들이 산사(山寺)나 글방에 모여 함께 공부하며 정보도 교환하던 것을 거접(居接)이라 하였는데, 산방(山房)은 거접하던 산사나 글방을 가리킴.

20) 관찰사나 수령이 지방 유생들의 학업 장려를 위해 실시하던 시험.

21) 과거 시험에 쓰던 종이.

상태였다.²²⁾ 이에 김약련은 가문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과거 급제와 출사(出仕)에 온 힘을 쏟게 된다. 서울 명문가와는 거리가 먼 경북 영주의 한미한 가문에서 자란 김약련이 과거를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조선후기 향촌사족의 힘겨운 삶에 꽤 많이 주목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삶 못지않게, 어쩌면 이들보다 훨씬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바로 순천김씨와 같은 향촌사족 부인들의 삶이다.

공부하는 데 필요한 문방사우(文房四友), 선비로서의 체통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복장은 말할 것도 없고 과거 준비를 위해 거점하던 산방에 쓰일 양식, 과거를 보러 다닐 때 소요되는 경비, 과거 시험장에서 사용할 종이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챙기며 뒷바라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여기에 투입되는 모든 경비를 배 팔고, 소 팔고, 전답을 팔아 마련한다는 점이고, 이 자산들은 “혼жат 쓴 샷던 田畠 / 앓길 줄 모르고서”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 순천김씨가 직접 일군 것들이라는 점이다. 조선후기 한미한 향촌사족들의 아내가 대개 그랬듯이 순천김씨도 치산(治産)에 온 힘을 쏟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남편의 과거를 뒷받침하였다. 그리하여 드디어 남편 김약련이 마흔이 훌쩍 넘은 나이(45세)에 소과와 대과를 동시에 합격하는 영광을 이루게 된다. 어려운 환경에서 오랜 기간 고생한 끝에 찾아온 기쁨을 그녀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山 넘의 저 장재 ²³⁾ 님	산 너머 저 부자님
穀石 두고 자랑 마오	곡식 두고 자랑 마오
넙고 벗고 먹고 굶기	입고 벗고 먹고 굶기
그 무어시 關係 혼가	그 무엇이 관계한가?
浮世에 도흔 榮光	세상에 좋은 영광
科擧 밧긔 쏘 잇는가	과거 외에 또 있는가?
흐물며 모힌 사람	하물며 모인 사람

22) 김약련의 가계와 생애에 대해서는 ‘권영채, 「두암 김약련의 생애와 산문세계」 「전」 창작을 통한 ‘의리’ 의식의 형상화를 중심으로-, 안동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참조.

23) 장자(長者). 큰 부자를 점잖게 이르는 말.

한글긋치 ㅎ는 말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一年의 大小科는	일 년의 대소과는
平生 喫着 못다 ㅎ리	평생 의식 못다 하랴

산 너머 부자에게 곡식 자랑 말라고 충고하고, 한 해에 대소과를 동시에 합격 함으로써 평생 동안 먹고 입을 것이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로는 사람들의 말을 부각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그 동안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이 많았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남편의 과거 합격으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던 것이 순식간에 돌변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만다. 과거에 합격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벼슬길에 나가 출세가도를 달릴 줄 알았건만 뜻밖에도 벼슬은 고사하고 귀양을 가게 된다.²⁴⁾ 지은 죄가 없어 몇 달 만에 풀려나기는 했으나 유배지를 오가느라 빛을 지고 얼마 안 되는 남은 발까지 팔아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되자 순천김씨는 역농(力農)을 결심하게 된다.²⁵⁾ 그녀의 생각으로는 유배에서 풀려나기는 했으나 다시 벼슬길에 나가는 쉽지 않아 보이므로 이제는 벼슬길에 나가 녹봉을 받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직접 농사를 지어 살 길을 도모해야 한다는 현실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때마침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웃 마을에 참고할 사례까지 나타났다.

아모 ㅁ을 아모 ㅁ은	아무 마을 아무 ㅁ은
自家 家長 자랑 말이	자기 가장 자랑하길
아기 ㅁ 師長 ㅁ라	아기 때 스승 따라
千字 居正 ²⁶⁾ 비호더니	천자(千字) 유합(類合) 배우더니

24) “宦路의 못 올라서 / 귀향은 무슨 일고”. 김약원은 45세인 1774년 겨울에 문과에 급제한 후 승정원 가주서(假注書)로 벼슬길을 시작하였으나 정조 즉위년(1776년) 8월에 일어난 이응원(李應元) 상소 사건-정조가 즉위하자 안동 유생 이도현(李道顯)이 아들 이응원을 시켜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련된 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부자가 함께 처형된 사건에 연루되어 삭령으로 유배를 갔다가 이듬해 1월 풀려났다. “宦路의 못 올라서”라고 표현한 것은 승정원 가주서가 정식 벼슬이 아닌 임시직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25) “지은 罪 업건마는 / 노 ㅎ시니 天恩일쇠 / 머나면 關塞 길히 / 가너 오너 빛이로다 / 풀고 남은 적은 ㅁ홀 / 쫓 ㅎ 자리 ㅁ단 말가 / 이직란 남은 田地 / 力農이나 ㅎ자 ㅎ니”

26) 유합(類合). 한자를 수량·방위 등으로 유별(類別)하여 새김과 독음을 붙여 만든 한자 입문서.

艱難의 놀나신지	가난에 놀랐는지
冊을 묵거 시렁 언꼬	책을 묵어 시렁 엮고
광히 매고 흙의 쥐어	팽이 매고 호미 쥐어
논 밍고 밧을 갖과	논 매고 밭을 가귀
너름의 수고하여	여름에 수고하여
꺾을의 두드리니	가을에 타작하니
妻子眷屬 비 불리고	집안 식구 배 불리고
환자 구실 걱정 업네	환곡 세금 걱정 없네.
이 아니 神仙인가	이 아니 신선인가?
科擧하여 무슴 흐리	과거하여 무엇 하랴?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다. 어릴 때부터 평생 동안 글공부만 해온 사람을 농사에 길들이기 어렵거니와²⁷⁾ 남편의 의지 또한 박약하여 말조차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²⁸⁾ 이런 상황에 권농차사는 세금을 바치라 독촉하고, 끼니도 못 때운다고 사실대로 말하지만 믿어주질 않는다.²⁹⁾ 그런데 더욱 화가 나는 것은 남편의 태도다. 그는 이런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가 굶게 된 것은 화식을 하게 만든 수인씨(燧人氏) 탓이요,³⁰⁾ 사람의 부귀빈천을 마련하여 준 것은 하늘의 옥황상제(玉皇上帝)니 어찌 가서 굶는 탓을 물을 수 있겠느냐고 허튼 소리만 늘어놓는다.³¹⁾ 이를 들은 순천김씨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 말

『천자문(千字文)』과 함께 널리 사용된 입문서로 『천자문』을 익힌 뒤에 배우던 책. 서거정(徐居正)의 저작설이 있어 거정(居正)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나 최세진(崔世珍)의 『훈몽자회(訓蒙字會)』에 새김이 인용된 일이 없는 사실로 미루어 16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7) “어린 제 엇 뵈 님을 / 내 어이 길드리라”

28) “글工夫 헛던 虛費 / 科擧 보던 이 所入을 / 다 두어 田地 사고 / 夫耕婦饁 ㅎ음드면 / 저 婦人 저 丈夫들 / 현마 ㅎ들 못 밋즈리 / 부절업논 이 말슴을 / 석원희 ㅎ자 ㅎ들 / 잇느니 업논 말슴 / 드르시기 슬ㅎ신지 / 마리 우 문 안ㅎ로 / 드리시지 아니시나”

29) “門 밧고 勸農差使 / 文官이라 두리던지 / 次知는 두고 가오 / 來日 부딴 밧치쇼셔 / 그는 도히 磨勤ㅎ나 / 저 아히 소릭 듯소 / 어찌 아츰 먹은 後의 / 다시 입을 못 데오니 / 험 업슨 제 ㅁ음의 / 두고 아니 주는 ㅁ시 / 저련 일 싱각ㅎ니 / 그 뉘 ㅁ시 된다 ㅎ리”

30) “冊칙 ㄷ고 도라안자 / 날드려 ㅎ는 말슴 / 人皇氏 ㅁ트 代 孫子 / 燧人氏 되똥던지 / 절노 ㅁ즌 남우 여름 / 먹고 도히 사던 거슬 / 燧人氏 多事ㅎ여 / 敎人火食 ㅎ실세고 / 우리 夫妻 굶는 일은 / 그 ㅁ시 燧人氏요”

31) “九萬 里 ㄷ흔 우희 / 玉皇上帝 안자 계서 / 天下 사름 富貴貧賤 / 磨鍊ㅎ여 주어시니 / 굶는

을 해 봤자 더 이상 아무 소득이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체념과 자기위안뿐이다.³²⁾

이상에서 보듯 <노부탄>은 가진 것 없는 향촌사족 가문으로 시집간 순천김씨가 남편 출세, 자녀 교육, 가정 경제 등 모든 것을 책임지고 힘들게 살았던 자신의 육십 인생을 회고하며 탄식조로 읊은 가사다. 이런 점에서 앞서 이미 밝힌 바 있듯 규방가사의 전통을 일정하게 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규방가사의 일반적 형태와는 구별되는 지점이 꽤 존재한다.

여인이 자신의 인생을 탄식조로 읊은 규방가사를 우리는 흔히 자탄가라고 부른다. 자탄가도 작품마다 다양한 내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블리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여자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고, 그 한탄의 핵심 원인으로 고된 시집살이를 지목하고 있는 점에서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시집살이의 내용은 계녀가류 규방가사에서 규정한 부덕(婦德)³³⁾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노부탄>에는 순천김씨의 고된 시집살이와 관련된 다양한 서술이 나타나지 않는다. <노부탄>에 나타난 순천김씨의 시집살이는 전혀 다양하지 않다. 다양성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과거 준비에 불편이 없도록 만드는 치산의 문제로 초점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점에서 <노부탄>은 계녀가류 규방가사이면서 부덕 중 치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변형 계녀가로 통하는 <복선화음가>와 닮아 있다. 그러나 <복선화음가>가 치산을 잘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 부덕의 핵심이라는 계녀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임에 비해³⁴⁾ <노부탄>은

탓 무르려들 / 어이하여 올라가리 / 탓 무려 무슴 흐리 / 하늘만 기도리오 / 굿하여 저 上帝님 / 無祿人 내어실가”

32) “나도 이 말 못하고 / 말하여 無益호외 / 門 닳고 돌쳐 헤니 / 오냐 어이허리 / 世上의 굵고 벗고 글 흐다가 / 科擧도 못 흐 사람 만흐니라”

33) 사구고(事舅姑 : 시부모를 섬김), 사군자(事君子 : 남편을 섬김), 목친척(睦親戚 : 친척과 화목함), 봉제사(奉祭祀 : 제사를 받들), 접빈객(接賓客 : 손님을 대접함), 태교(胎敎), 육아(育兒), 어노비(御奴婢 : 종들을 다스림), 치산(治産 : 살림살이를 돌봄), 출입(出入), 항심(恒心).

34) <복선화음가>에 대한 해석은 논쟁적 이견이 존재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가부장제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치산에 대한 남성의 인식은 오히려 더욱 부정적이었던 모순 상태에서 이 모순을 봉합하기 위해 여성의 적극적 치산을 장려하고 권면하게 되었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하윤섭,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모순과 상상적 봉합-〈복선화음가〉에 대한 연

순천김씨가 자신이 실제로 살았던 인생을 추억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결국 <노부탄>은 규방가사의 전통 속에 있으며, 자신의 인생을 탄식조로 읊은 자탄가와 가난한 향촌사족의 대두로 여성 치산을 부덕의 핵심으로 부각하고자 한 변형 계녀가인 <복선화음가>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순천김씨가 자신의 인생을 탄식조로 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부탄>에서는 자탄가에서 느껴지는 심각한 한의 정서 같은 것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탄가처럼 후회를 기반으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긍심에 기반한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자신의 인생을 추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회갑을 맞은 순천김씨가 그간의 인생을 추억하는 대화를 남편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기억의 차이와 생각의 차이를 서술하여 남편과 자식들에게 보이기 위해 지은 것이다.³⁵⁾ 따라서 <노부탄>에 제시된 순천김씨의 고생은 현재의 시점에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형수 손에 길러져서 돈 한 푼, 곡식 한 알 없는 김약련에게 시집왔음에도 순천김씨는 이런 시맥을 탓하기보다는 입고 먹는 의식의 문제는 내가 해야 할 직분이 아니냐고 스스로 받아들인다.³⁶⁾ 또 이제 더 이상 팔 것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향후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남은 논밭을 직접 농사짓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녀는 남편을 억지로 끌어들이기보다 이제 와 어찌 길들이겠느냐고 하면서 혼자 힘으로 농사를 짓는다.³⁷⁾ 그러다 보니 일손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흉년조차 찾아서 끼니를 이을 때도 있고 못 이을 때도 있는 처지에 놓이지만 이때도 그녀는 가장은 이미 늙어 농사를 못 지으니 자식들이나 살펴보자고 한다.³⁸⁾ 이웃 마을 아낙의

구사 검토와 새로운 독법의 마련」, 『한민족어문학』 제63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참조

35) <노부탄>의 서두에는 다음과 같은 짧은 글이 적혀 있다. “岑寂中, 述夫婦戲語, 聊供一笑, 且示子孫云.(고요한 가운데 부부의 희어를 서술하여 애오라지 한 번 웃고 또 자손들에게 보이노라.)”

36) “일찍이 失母하고 / 兄嫂의 食客 되어 / 一分錢 一粒穀을 / 私儲를 어이허리 / 닦으시고 먹을 일은 / 내 職分 그 아닐가?”

37) “이직란 남은 田地 / 力農이나 혼자 하니 / 어린 제 옛 벤 님을 / 내 어이 길드리라”

38) “人力을 못 드리고 / 凶年조차 ぞ글세고 / 아침밥 저녁독을 / 니우락 못 니우니 / 家長은 임의 늘거 / 고쳐 農事 못 하여도 / 내 나흔 셋 아들을 / 다시곰 살펴보니 / 어린 제 나며 집고 / 사흘 범 쇼 슬피네”

애기를 듣고 부러운 마음에 남편은 밭을 갈고 아내는 점심을 나르는 부경부업(夫耕婦織)을 꿈꾸며 어렵게 말을 꺼내자 남편은 허튼소리만 늘어놓으며 운명론을 펴는 마지막 대목에서도 그녀는 “世上의 굶고 벗고 글 학다가 / 科擧도 못흔 사름 만흔니라”고 하여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자기위안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듯 심각한 상황에서도 심각하지 않게 긍정의 힘으로 넘기는 것처럼 서술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지나간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그런 힘든 시절을 지나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그것을 추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남아가>의 전통과 <답부사>

<노부탄>이 규방가사의 전통을 이어 순천김씨의 인생을 서술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답가인 김약련의 <답부사>³⁹⁾는 <남아가> - 또는 <남자가> - 의 전통⁴⁰⁾을 일정하게 계승하여 자신의 인생을 서술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자탄가류의 규방가사가 여자의 일생을 탄식조로 읊은 것이라면 <남아가>는 남자의 일생을 최대한 화려하게 노래한 것이다. 즉 출생과 하례(賀禮), 성장과정의 수학(修學)과 생활, 혼례 및 유행(遊行), 과거급제 및 관직생활, 치사(致仕) 이후 등으로 남자의 일생을 나누어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려진 구체적 삶의 양태를 보면 현실적 삶이라기보다는 남자가 회구하는 이상적 삶에 가깝다. 따라서 <남아가>는 조선시대 상층 남성들이 꿈꾸던 삶을 노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⁴¹⁾ 그

39) 제목 위에 “九十六句”라 쓰여 있으나 실제는 4음보 1구 기준 97구, 2음보 1구 기준 194구임.

40) 여기서 <남아가>의 전통이라 함은 조선시대 상층 남성들이 자신의 삶을 최대한 아름답고 이상적으로 포장하여 가사체로 노래하는 문학적 관습이 존재해 왔음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현전 <남아가>를 염두에 두고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김약련의 <답부사>와 현전 <남아가>의 선후 관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또 <남아가>가 먼저 존재했다 하더라도 김약련이 그 <남아가>를 보고 <답부사>를 지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효과적인 대비를 위해 현전 <남아가>를 비교 대상으로 활용했음을 밝혀 둔다.

41) <남아가>에 대해서는 ‘이상원, 『<남아가>에 투영된 이상적 삶과 그것의 문화사적 의미』, 『민족문화사연구』 제42호, 민족문화사학회, 2010.’ 참조.

래서일까 김약련의 <답부사>도 이런 <남아가>를 흉내 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도 일얼만정	나도 이럴망정
阿孩 썩 豪傑이라	아이 적 호걸이라.
五六歲 남자 마자	오륙 세 남자마자
氣運의 불니여서	기운에 휩쓸려서
대 짓거 물을 삼고	대 꺾어 말을 삼고
파 셋쳐 저흙 불너	파 잘라 저를 불어
沙場을 雲浪 ⁴²⁾ 삼아	모래밭을 운해 삼아
看花遊 비기오니	꽃구경에 비기니
덜떨머리 현 衣服은	더떨머리 현 의복은
놈의 是非 잊제마는	남의 시비 잊지마는
큰 뜻과 긴 計規는	큰 뜻과 긴 계획은
내 마음의 버러 잇너	내 마음에 들어 있네.

<남아가>의 첫 부분은 준수한 용모와 복록을 가지고 태어나서 부귀공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어서 천자문을 떼고 사서삼경을 공부하는 수학(修學) 과정을 그린다. 그런데 남아의 성장 과정에서 수학보다 오히려 더 강조되는 것은 각종 놀이와 유희를 즐기는 모습이다. 수학은 사족 자제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과업이므로 이것만으로는 남자다운 남자-또는 이상적인 남자-인 남아가 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⁴³⁾ <답부사>가 호걸 남자로 태어났음을 강조하고 죽마(竹馬), 파피리, 활쏘기 등 각종 놀이를 즐기며 특별한 남자가 되기 위한 포부를 품어 왔다고 시작하는 것은 바로 <남아가>의 이런 맥락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답부사>의 시작 부분은 <남아가>와 견주어 봤을 때 꽤 큰 차이가 난다. <남아가>의 경우 “낙양의 소동들아 / 이 말슴 드러보소”라 하여 치사(致仕) 후 서울 근교에서 살고 있는 경화사족(京華士族)이 서울의 아이들에게 말을

42) 운해(雲海)?

43) 이상원, 앞의 논문.

거는 방식으로 시작한다. 반면 <답부사>는 “나도 일얼만정 / 阿孩 썩 豪傑이 리”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김약련이 아내 순천김씨에게 “지금은 당신 보기에 이렇게 하찮아 보일지라도 이런 나도 어릴 때는 호걸 남아를 꿈꾸었었다”라고 허세를 부리는 측면이 강한 것이다. 또 <답부사>에는 준수한 용모와 복록을 가지고 태어나서 부귀공명이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도 나타나지 않는다. 각종 놀이와 유흥을 즐기는 모습 또한 대폭 축소되어 최소한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그 이상의 최고가 되고 싶어 했던 경화사족의 꿈과 욕망을 반영한 <남아가>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게 공부하여 늦은 나이에 과거에 합격했으나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유배를 갔다 풀려나 전원생활을 하고 있는 향촌사족의 실제적 삶을 노래한 <답부사>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바 향후 작품 전개에서도 이런 차이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하에서도 <답부사>가 <남아가>를 흉내 낸 부분과, 흉내 내고 싶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나타난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남아가>에 제시된 남자의 일생 중 관직 생활까지-출생과 하례(賀禮), 성장과정의 수학(修學)과 생활, 혼례 및 유행(遊行), 과거급제 및 관직생활-는 지나치게 축소된 형태를 취한 반면 치사(致仕) 이후는 반대로 상당히 늘어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아가>에서는 관직생활까지가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며 치사 이후는 이본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최소한으로 그려지고 있다.⁴⁴⁾ 하지만 <답부사>의 경우 전원으로 돌아오기 이전의 상황과 전원으로 돌아온 이후의 생활을 그린 것이 거의 비슷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⁴⁵⁾

二十을 두 히 두고	이십을 두 해 두고
家君의 命을 밧아	부친의 命을 받아
갓 道袍 츠려 님고	갓 도포 차려 입고

44) <남아가>의 이본별 치사 이후 분량은 4음보 1행 기준으로 구수영 소개본은 162행 중 5행, 장서각본은 175행 중 6행, 국립중앙도서관본은 209행 중 20행에 불과하다. 위의 논문 참조.

45) 전체 194구(2음보 1구 기준) 중 전원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상황을 그린 것이 98구, 전원으로 돌아온 이후의 생활을 그린 것이 96구다.

물 타고 올히 안아	말 타고 오리 안아
內助를 求히리라	아내를 구하려고
順天氏 門의 드니	순천씨 문에 드니
스랑 김흔 聘母氏며	사랑 깊은 빙모씨며
友于하느 妻兄일며	사이좋은 처형이며
박진 ⁴⁶⁾ 의 먹은 盟誓	혼례 때 먹은 맹세
내 ㅁ음 아뉘던지	내 마음 알았던지
뜻을 ㅁ아 일을 도아	뜻을 ㅁ아 일을 도와
말 지자 施行하니	말 끝나자 시행하니
빈 주먹 불웃 쥐고	빈 주먹 불끈 쥐고
文學場의 두루 노라	문학장에 두루 놀아
스므 히 계유 넘고	스무 해 겨우 넘고
三十一이 멀어실 제	삼십이 멀었을 때
春塘臺 귀경 가려	춘당대 구경 가려
行資를 議論하니	노자를 의논하니
크다 큰 황이쇼를	크나큰 황소를
다만 옛 냥 ㅁ아세라	다만 옛 냥 ㅁ았구나.
어선뎛 물의녀코	얼른 집어넣고
悔心이 ㅁ혀 업너	뉘우침이 전혀 없네.

이는 김약련이 열여덟에 한 살 연상인 순천김씨와 혼례를 치른 것을 서술한 부분이다. <남아가>의 경우 이 부분은 혼례만 서술되지 않고 혼례 후 각종 놀이를 즐기러 다니는 유행(遊行)⁴⁷⁾의 내용이 함께, 그것도 아주 화려하고 길게 서술된다. <남아가>를 흔히 출생과 하례(賀禮), 성장과정의 수학(修學)과 생활, 혼례 및 유행(遊行), 과거급제 및 관직생활, 치사(致仕) 이후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

46) 조그만 박을 반으로 갈라 옷칠을 하고 금 고리를 단 잔. 혼례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술을 주고 받는 합근례(合巹禮) 때 사용하는 잔이다.

47) 이 부분이 가장 자세한 장서각본의 경우 상원 담교, 삼월 삼진날 화류놀이 및 유상오유, 초파일 연등놀이, 밤화류, 단오 그네뛰기, 사냥 및 단풍놀이, 선유놀음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구수영 소개본은 이 중 밤화류가 빠져 있고, 국립중앙도서관본의 경우 상원 담교, 초파일 연등놀이, 단오 그네뛰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상원, 앞의 논문’ 참조.

이 보통인데 이 중 혼례 및 유행 부분의 서술 분량이 가장 많다. 하지만 <답부사>는 위에서 보듯 열여덟에 부친의 명을 받아 순천김씨 가문에 장가들었다는 것, 그리고 순천김씨는 합근례(合窶禮)에서 한 서약을 잘 지키는 훌륭한 인물이라는 점 등 최소한의 내용만 서술한 뒤 곧바로 과거를 준비한 내용으로 넘어가고 있다.

스무 살 겨우 넘은 해에 본 첫 과거에 실패한 김약련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떨어지게 된다.⁴⁸⁾ 그러다가 45세에 이르러 드디어 소과와 대과를 동시에 합격하는 행운을 얻게 되는데 이때의 기억을 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四十一 얼핏 넘어	사십이 얼핏 넘어
다섯 히 지나게야	다섯 해 지났도다.
璧沼蓮 ⁴⁹⁾ 봄의 짓고	성균관 연 봄에 걸고
桂殿花 ⁵⁰⁾ 겨울 피어	궁궐 꽃 겨울 피어
貧家의 到門宴 ⁵¹⁾ 을	빈가의 도문연을
一年中 거포하고	일 년 중 거푸하고
婦女를 慰勞코져	부녀를 위로코자
世俗말 ㅎ요쇼되	세속말 하였으되
紅紙에 題名키느 ⁵²⁾	붉은 종이에 이름 씌운
丈夫장부의 내 일이되	장부의 내 일이되
내 직죄 적거니와	내 재주 적거니와
聖上이 버리실가	성상이 버리실까?
朝廷의 만흔 벼슬	조정의 많은 벼슬
分대로 ㅎ려니와	주는 대로 하려니와
許多흔 이 職責은	허다한 이 직책은

48) “이 科擧 虛過하고 / 後式年 쏘 지거다”

49) 벽소의 연꽃. 벽소는 중국 주(周)나라 때의 대학인 벽옹(辟雍)을 빙 두른 연못으로, 전하여 태학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임. 여기서는 성균관을 가리킴.

50) 계전의 꽃. 계전은 궁궐을 가리킴.

51)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베풀던 잔치.

52) 문과(文科) 회시(會試)에 급제한 사람에게는 홍지(紅紙)에 성적(成績), 등급(等級), 성명(姓名)을 쓴 증서(證書)를 주는 데 이를 홍지제명(紅紙題名)이라 함.

婦女야 어이 알니	부녀야 어찌 알랴
八路의 벌은 고을	팔도에 늘어진 고을
餘暇로 아니 할까	여가로 아니 할까
聖主의 근심 논하	성주의 근심 나뉘
百姓을 다스리니	백성을 다스리니
나라일 먼저 하고	나라일 먼저 하고
妻子나들 버릴소냐	처자들 버릴소냐
雙駕馬 편히 실어	쌍가마에 편히 실어
平生 수고 갑스오리	평생 수고 갚으리라.

어려운 환경을 딛고 늦은 나이에 소과와 대과를 한해에 동시 합격하는 상황이 찾아왔기에 이때만 해도 그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곱씹었을 것이다. 이는 그 동안 고생한 아내를 위로하면서도 허다한 직책을 부녀자가 어찌 알겠느냐고 하거나 고관들만 탄다는 쌍가마에 태워 평생 수고한 걸 갚겠다고 허세를 떠는 데서 잘 느낄 수 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도 그는 남아가 마땅히 해야 할 요순(堯舜) 군민(君民)을 이룩한 후 미련 없이 은퇴를 선택할 것이며, 그 뒤에는 손자들 가르치며 아내와 함께 소박한 즐거움을 누릴 것이라는 아름다운 상상을 늘어놓는다.⁵³⁾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갑자기 벌어지게 되면서 그는 생각지도 못했던 유배를 가게 되는데 천만다행으로 성은을 입어 몇 달 만에 전원으로 돌아오게 된다. 아마도 이 일은 김약련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하기 싫은 일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분은 기본적인 내용 전달 위주로 간단히 서술되어 있다.⁵⁴⁾

이는 작품 해석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답부사>가 <남아가>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과거 인생을 기억하여 서술하는 것은 작가의

53) “男兒의 ㅎ을 일은 / 이 남아 無數 ㅎ외 / 堯舜 君民 널인 後의 / 急流勇退 내 ㅎ오리 / 대역 間 새 草堂의 / 낫비단 삭여 걸고 / 어린 孫子 글 權 ㅎ며 / 若干 奴婢 農事 ㅅ겨 / 니웃 벗 오시거든 / 斗酒란 자내 ㅅ소 / 일 업시 ㅎ의 늘거 / 즐기자 ㅎ였더니”

54) “時運이 不幸 ㅎ지 / 身命이 곳뒸던지 / 注書薦 드던 ㅎ희 / 늘금 님 여희 ㅎ고 / 關塞 外 멀고 먼 ㅅ / 漁父의 譏弄 ㅎ에 / 天恩이 罔極 ㅎ여 / 田園으로 도라오나”

현재 위치나 작품 서술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약련이 만약 현재 자신의 인생을 비판하여 자신의 불우한 인생을 한탄하는 작품을 쓰겠다는 전략을 구사했다면 비록 몇 달이지만 인생에서 가장 황당한 일을 겪은 유배 체험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형상화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과는 정반대로 매우 간략하게 처리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는 <답부사>가 순천김씨의 회갑을 맞이하여 아내가 쓴 <노부탄>에 대한 화답가의 형태로 쓴 작품이라는 점, 비록 자신의 삶이 이상적 남아의 인생과 차이가 크지만 그래도 만년에 이 정도로라도 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심리적 여유를 확보한 점 등이 작동하여 가사의 전통 가운데 <남아가>의 전통을 선택하여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인생을 최대한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약련은 고달프고 힘겨웠던 삶은 최대한 축소하고 소박하지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김약련에게 소박하지만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전원으로 돌아온 이후의 삶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답부사>가 <남아가>와 달리 전원으로 돌아온 이후의 생활을 대폭 확대하여 그린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妻子를 께히 두고	처자를 곁에 두고
넋 글을 다시 보니	옛 글을 다시 보니
이 아니 君恩인가	이 아니 군은인가?
그 밧근 내 물내라	그 밖은 내 물래라.
五雲이 어딤메오	오색구름 어디인가?
벼슬 업시 안자시니	벼슬 없이 앉았으니
늪이야 웃건마는	남이야 웃건마는
내 몸이 편하여라	내 몸이 편하여라.
... (중략) ...	
그 밧근 閒中滋味	그 밖의 즐거움
늘근 婦人 드러 보오	늪은 부인 들어 보오.
石田이 逢豊하면	돌밭이 풍년 들면

환자빛 能히 츠고 ⁵⁵⁾	환자 빛 능히 갠고
백은 집 비 오거든	씩은 집 비 오거든
옹차리 ⁵⁶⁾ 저귀 잇네	뚝배기 저기 있네.
朝飯 夕粥을	아침밥 저녁죽을
三旬九食 아니흐리	삼순구식 아니하리.
子息들 갓 쓰이니	자식들 갓 쓰우니
며느리 孫子 잇네	며느리 자손 있네.
다 各各 제 구실을	다 각각 제 구실을
家中百官 츠리오니	집안 백관 차리오니
글 흘 것 글 써기고	글 할 것 글 시키고
農事 ^호 리 農事 ^호 며	농사할 이 농사하며
婦女들네 흘 일이	부녀들네 할 일이
紡績 織紝 職分이라	길쌈이 직분이라.
물의 가 고기 낫고	물에 가 고기 낚고
원두의 耨물 키야	들에서 나물 캐어
헛조밥 경히 지어	헛조밥 정성껏 지어
우리 둘 드리거든	우리 둘 드리거든
맛나게 먹고 안자	맛나게 먹고 앉아
근심 업시 도히 잇새	근심 없이 좋게 사세.
... (중략) ...	
우리는 이럴만정	우리는 이럴만정
結髮夫婦 ⁵⁷⁾ 아니론가	초혼부부 아니던가?
곳은 일 도흔 일을	곳은 일 좋은 일을
마조 안자 지나 잇고	마주 앉아 지내 왔고
今年의 남재 回甲	금년에 임자 회갑
明年이 내 나던 히	내년이 내 나던 해
이 일도 쉽지 아녀	이 일도 쉽지 않아

55) 치고 치우고 물건을 다른 데로 옮기어 깨끗이 하고 없애거나 정리하고

56) 옹기 국그릇. 뚝배기.

57) 수총각과 수처녀가 만나 성혼(成婚)한 날 밤에 남자는 상투를 틀고 여자는 쪽을 찢 부부가 된 것을 이르는 말.

사람마다 그럴손가	사람마다 그럴손가?
幸혀나 더 살아서	행여나 더 살아서
優老典 ⁵⁸⁾ 님스오면	명예직 받게 되면
꿋 뒤히 金玉貫子	귀 뒤에 금옥관자
허리에 불근 썩는	허리에 붉은 띠는
내 그를 흐려니와	내 그걸 하려니와
夫人牒 자내 트리	부인첩은 자네 타리.
이것도 하늘이니	이것도 하늘이니
기드려 보옵시소	기다려 보옵소서.
... (중략) ...	
婦人도 내 말 듯고	부인도 내 말 듣고
싱긔시 웃노매라	싱긔이 웃는구나.
어우와 浮世人生이니	어우와 덧없는 인생이니
이렁구러 즐기리라	이러구러 즐기리라.

자발적으로 전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된 것이지만 김약련은 이를 한탄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처자를 곁에 두고 옛 글을 다시 보니 이것이 곧 군은이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옛 글을 다시 본다”는 말이 의미심장하다. 지금까지 해 왔던 글공부와는 다른 형태의 글공부를 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말로 보인다. 이로써 보건대 전원으로 돌아온 김약련은 사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글공부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해 왔던 과거를 위한 글공부가 아닌, 진정한 깨달음을 위주로 하는 새로운 글공부를 하게 되면서 마음의 안정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그는 출세와 성공, 그리고 부귀영화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한가하고 소박한 가운데서 인생의 참맛을 느끼게 된다. 비록 돌밭이라도 풍년이 들어 환자 빛이라도 갚을 수 있으면 좋고, 배부르게 먹지는 못하더라도 삼순구식(三旬九食)할 정도로 끼니를 거르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마음먹는다.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온 집안 식구들은 다 각각 자신의 본분을 정확

58) 나이 많은 사람에게 대우하여 특별히 내리는 벼슬.

히 알아 제 구실을 차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우리 부부는 소박한 음식이나 마 정성껏 차려준 것을 맛나게 먹고 근심 없이 지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는 지나온 인생을 후회하기보다는 부부가 함께하는 현재의 삶에 충실한 상태에서 앞으로의 여생(餘生)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된다. 그에게 있어 과거는 아무리 뉘우쳐본들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이미 지나간 것에 불과하다.⁵⁹⁾ 반면 현재는 상처(喪妻)하고 상부(喪夫)한 사람들이 슬하게 발생한⁶⁰⁾ 환갑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함께 살면서 상호 간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시간이다. 따라서 그는 이 현재의 삶에 최대한 충실하고자 하며 나아가 부부의 꿈이랄 수 있는 해로연(偕老宴)을 상상하기도 하고,⁶¹⁾ 자신은 우로전(優老典)을 입고 아내는 부인첩(夫人牒)을 받는 것을 꿈꾸기도 한다.

이런 그의 아름다운 상상에 부인도 싫지 않은 듯 싱긋이 웃어 준다. 그러자 그는 덧없는 게 인생이니 앞으로도 이렇게 즐기며 살겠다고 하면서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다.

<답부사>는 순천김씨의 <노부탄>에 대한 화답가의 형태로 김약련이 지은 것이지만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를 달래고 위로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 남자로서의 일생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남자의 이상적 삶을 그리고 있는 <남아가>의 전통을 계승하여 거기에 입각한 서술 방식을 취하고자 하였지만, 향촌사족의 현실적 처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각종 놀이나 유흥을 즐기는 모습과 화려한 관직생활에 대한 서술은 대폭 축소되는 대신에 치사 이후의 전원생활에 대한 모습이 크게 늘어나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9) “곳은 니 다 싸지고 / 검은 머리 희여시니 / 虛送흔 저 光陰이 / 앓갑다 ㅎ련마는 / 이직야 뉘웃춘들 / 다시 ㅎ 일 ㅎ혀 업니”

60) “中間 四十年의 / 無故흔 니 열희 ㅎ나 / 夫喪妻 妻喪夫를 / 손꼽으니 여러힐쇠”

61) “當年の 우리 內外 / 偕老宴 ㅎ을 적의 / 니웃집 新郎 新婦 / 몇몇치 되랴마는”

4. 결론, 그리고 기억의 차이가 의미하는 것

『두암제영』에 수록된 가사 4편 중 <노부탄>과 <답부사>는 김약련과 순천김씨가 주고받은 최초의 부부화답가다. 이런 점에서도 이 작품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40여 년 동안 인생을 함께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40년 인생에 대한 서로의 기억과 그것을 가사로 풀어내는 방식이 서로 다른 점에 주목하여 두 작품을 분석하였다.

<노부탄>은 ‘늙은 부인의 탄식’이라는 뜻의 제목에서 드러나듯 회갑을 맞이한 순천김씨가 자신의 삶을 탄식조로 되돌아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자탄가 계열의 규방가사가 가지고 있는 틀을 계승한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자탄가의 대부분이 여성의 각종 시집살이를 최대한 많이 늘어놓는 방식을 취하는 것과 달리 이 작품은 여성의 시집살이 중 남편 뒷바라지와 치산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는 규방가사 가운데 변형 계녀가로 통하는 <복선화음가>와 유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노부탄>은 규방가사의 전통을 이었으며 자탄가와 <복선화음가>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답부사>는 순천김씨의 <노부탄>에 김약련이 화답한 작품이다.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여자로서의 삶을 탄식조로 노래한 <노부탄>에 대한 화답가임에도 불구하고 <답부사>는 아내를 달래고 위로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남자로서의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이 모델로 삼은 것은 조선시대 상층 남성들의 꿈과 욕망을 집약한 <남아가>이다. 그런데 <답부사>는 전체적인 틀에서 <남아가>의 전통을 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남아가>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아가>에서 강조되고 있는 신나는 놀이와 유희, 화려한 관직생활 등에 대한 내용은 대폭 축소된 대신에 <남아가>에서는 간단하게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치사 이후의 삶에 대한 내용이 작품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확대되어 있다.

부부로서 40여 년의 인생을 함께해 왔지만 그 시간에 대한 김약련과 순천김씨의 기억은 이처럼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란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이것이 과연 기억의 문제만인가 하는 점이다. 즉 부부로서의 동일한(?) 삶에 대한 서로 다른 기억이라는 식의 정리가 과연 온당한가 하는 점이다. 함께 사는 부부는 과연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루 온종일 함께 있으면서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여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사는 부부를 가정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론이 아닌 실제적 삶에서는 함께 사는 부부라 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결코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조선후기 향촌사족 가문의 부부라면 동일하지 않은 정도는 더욱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러 예외가 있기는 하였으나 남자는 집안의 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글공부에만 전념하였고 여자는 남편 내조, 부모 봉양, 자녀 교육, 손님 접대, 제사, 치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한 것이 조선후기 향촌사족 가문의 일반적 풍경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보건대 <노부탄>과 <답부사>에 그려진 형상은 순천김씨와 김약련의 기억의 차이 이전에 그들의 삶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김약련 부부가 조선후기 향촌사족 가문 일반의 여느 부부와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온 것이라면 도대체 그들은 어찌하여 남들은 남기지 않은 부부화답가를 짓게 된 것일까? 만일 남자는 끝까지 글공부에만 전념하고 이로 인해 집안의 모든 일은 끝까지 여자에게 맡겨짐으로써 서로에 대한 화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각자 자신의 길만 걸어갔다면 여성의 자탄가는 탄생할 수 있었을지언정 부부화답가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부부화답가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배려와 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노부탄>과 <답부사>가 창작된 배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작품은 앞서 이미 밝힌 바 있듯이 순천김씨의 회갑을 맞이하여 서로 주고받은 것이다. 회갑이란 육십갑자가 한 바퀴 돌고 자기가 태어난 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기대수명이 낮았던 옛날에는 회갑까지 사는 것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회갑을 맞이하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덤으로 주어진 회갑 이후의 삶의 의미를 되새기곤 하였다. 개인의 경우도 그렇거니와 부부, 특히 재혼부부가 아닌 초혼부부가 함께 회갑을 맞는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영광된 일로 받아들였을 법하다.

<노부탄>과 <답부사>는 이 영광스런 회갑을 맞이하여 새로운 부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살아온 인생을 추억하고 그 내용을 서로에게 들려주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노부탄>에 그려진 순천김씨의 탄식조는 한(恨)의 토로라기보다는 남편에 대한 칭얼거림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답부사> 역시 겉으로는 남아의 일생을 산 것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은 것 같지만 실은 그대가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철없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아내에게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노부탄>과 <답부사>로 상호 소통하며 새롭게 태어난 이 부부는 그 후 10년을 더 함께 살았다고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두암제영』

2. 논저

권순희, 「화전가류 가사의 창작 및 소통 맥락에 대한 재검토」, 『어문논집』 제53호, 민족어문학회, 2006.

(UCI : G704-000917.2006.0.53.012)

권영채, 「두암 김약련의 생애와 산문세계-「전」 창작을 통한 ‘의리’ 의식의 형상화를 중심으로-」, 안동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백두현, 「두암 김약련의 한글 가사와 시조- 노부탄, 답부사, 과폐탄, 소학가, 육가-」, 『어문론총』 제63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UCI : G704-001631.2015..63.025)

손대현, 「『두암제영』 소재 가사의 형상화와 문학사적 가치」, 『어문론총』 제63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UCI : G704-001631.2015..63.023)

_____, 「<소학가>의 『소학』 수용과 문학적 의미」, 『어문학』 제135집, 한국어문학회, 2017.

(UCI : G704-000112.2017..135.011)

_____, 「<과폐탄>의 서술 양상과 문학사적 가치」, 『어문학』 제139집, 한국어문학회, 2018.

신경숙, 「규방가사, 그 탄식 시편을 읽는 방법」, 『국제어문』 제25집, 국제어문학회, 2002.

(UCI : G704-000774.2002..25.006)

신성환, 「조선후기 ‘치산’의 문제와 <치산편>의 의미」, 『어문연구』 45권 3호, 어문교육연구회, 2017.

안대회, 「연작가사 『승가』의 작자와 작품성격」, 『한국시가연구』 제26집, 한국시가학회, 2009.

(UCI : G704-000454.2009.26..008)

이상원, 「<남아가>에 투영된 이상적 삶과 그것의 문화사적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제42호, 민족문학사학회, 2010.

(UCI : G704-000519.2010.42.007)

_____, 「<두암육가>의 성격과 계보학적 위상」, 『한국시가문화연구』 제40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7.

_____, 「『소수록』 소재 <청룡가인한창가> 연구」, 『한국시가연구』 제44집, 한국시가학회, 2018.

이원주, 「『잡록』과 <반조화전가>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제7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80.

하운섭,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모순과 상상적 봉합-<복선화음가>에 대한 연구사 검토와 새로운 독법의 마련-」, 『한민족어문학』 제63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UCI : G704-001066.2013..63.010)

| Abstract |

A Couple's Memories about the Life of a Local Intellectual during the Latter Half of Joseon

- Nobutan by Mrs. Kim of Suncheon and Dapbusa by Kim Yak-ryeon

Lee, Sang-won

This paper presents an analytical examination into the first response songs between a couple, Nobutan and Dapbusa, whose authors are Mrs. Kim of Suncheon and Kim Yak-ryeon showed differences in their memories of their life and the ways that they embodied them in a literary fashion even though they were a couple.

In Nobutan, the old lady Mrs. Kim of Suncheon depicts his life in sighs as the title means “an old lady’s sighs.” The content of this work, however, focuses on how she took care of her husband in his state exam and managed the household affairs around it. This work is thus located between Jatangas, which is about wives’ lamentation about their misfortunes, and Bokseonhwaemuga, which is an altered Gyenyeoga focused on the management of household affairs among women’s roles, in the category of women’s quarters Gasas. Dapbusa is Kim Yak-ryeon’s response song to his wife’s Nobutan. It focuses on his ostentation of his life as a man based on the model of Namaga, which is an integration of dreams and desires among the upper-class men during Joseon. It inherits the tradition of Namaga in its entire framework but shows many differences from it in its details. Unlike Namaga, which emphasizes exciting play, pleasure, and splendid office life, it reduces this content considerably and instead expands the content about his life after resignation, which comes at the end briefly, heavily. In fact, the content about his life after resignation accounts for more than a half of the pages.

These differences between Nobutan and Dapbusa derive from differences in memories and cultural conventions between husband and wife. The differences in conventions between women’s quarters Gasas as part of women’s literature and Namaga as part of men’s literature are eventually attributable to actual life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Key words : Bokseonhwaemuga, Dapbusa, Kim Yak-ryeon, Namaga, Nobutan, Women’s quarters Gasas

투고일 : 2018년 7월 15일 심사기간 : 7월 30일 - 8월 14일 게재확정일 : 8월 15일

